

# “붓다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 호진·지안 스님, 구법의 길에서 주고 받은 편지글 책으로 나와

“신경화와 전설이 신타르타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죽이고 있는 주범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신타르타를 역사적으로 존재하게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나도 동참합니다. 신화와 전설에 잘못 도취되면 종교의 증독증이 나옵니다. 종교의 창시자들은 필요 이상으로 이상화되거나 신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특정 종교의 교단이 형성되고부터 교조 찬양주의에 빠진 신자들의 맹목적 충성심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호진 스님(前 동국대 교수)과 지안 스님(종립승가대학원장)이 주고받은 글이다. 호진 스님은 초기불교를, 지안 스님은 대승경전을 연구 중이다. 학승이자 도반인 두 스님이 글로 나눈 대화는 호진 스님이 부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찾기 위해 1년 동안 인도 성지 순례에 나서며 시작된다.

호진 스님은 인도 여행기간 동안 지안 스님과 부처님의 참 모습에 대해 고민하며 진솔한 글을 주고 받았고, 이 글이 책으로 엮였다. <성지에서 쓴 편지>는 초기불교와 대승불교



호진·지안 스님, 구법의 길에서 주고 받은 편지글 책으로 나와

라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붓다를 논한 ‘인간 붓다에 대한 단상(斷想)’이 정리된 책이다. 책은 읽는 이에게 붓다를 주제로 초기·대승불교의 교리적인 동질성과 차이성의 지식을 전달해 주는 외에도 도반끼리 주고 받는 말 가운데에서 소중한 재미를 전한다.

호진 스님은 인도에서 섬세 4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 더위, 속도도 제대로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부처님이 몸소 걸으셨던 수천 km의 길을 걸었다. 2600년 전 붓다가 걸었던 그 길을 걸으며 스님은 ‘신타르타 고평마 붓다’는 인간적인 존재였다고 확신했다. 호진 스님은 경전에 나와 있지만, 잘못 전해진 부처님 일대기를 직접 체험하며 무엇이 잘못 된 것인지를 세심하게 적었다.

스님은 “붓다는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육체적인 기능과 감각과 따뜻한 피를 가진 인간이었다. 매일 밥을 먹고 변소에도 갔고 밤에는 잠을 잤다. 아난다와 사리뿌뜨라 같은 제자들을 사랑했고, 데바닷타와 꼬삼비 비구들을 미워하기도 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들 앞에 나타난 붓다는 초인간적인 신 가운데 가장 큰 신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지안 스님은 호진 스님의 지적에 대부분 공감하며 “종교라 해서 맹목적 믿음에 빠져 인간성이 유리되는 증폭 증세를 보여주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법의 진정한 이해와 그것을 통한 인간현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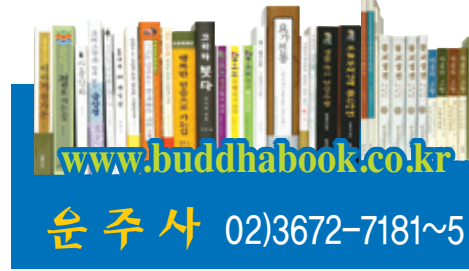
이어 “오늘날 종교는 상업주의에 편승해 걸치레에 형식의 포장하기와 생색내기엔 몰두하고 있다. 더욱이 수행을 표방하는 불교가 부처님의 출가정신을 상실하고 개인의 공명을 도모하면서 공리적 입지만 강화해 그것이 교화영역의 확장이라 생각하는 것은 틀렸다고 본다”고 입장을 밝힌다.

성지에서 쓴 편지 | 호진·지안 지음 | 도피안사 펴냄 1만 3000원 |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도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굿바이 티베트	M. 블루멘크론	하안연꽃
4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5	불교성지순례 (인도 네팔)	대연	이스트워드
6	법정 스님 선곡	법정	다래헌
7	초기불교 이해	각목	초기불전연구원
8	생각버리기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2세기북스
9	사벽의 대화	지허	도피안사
10	다음생을 바꾸는 49일간의 기도	법성	운주사

※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 문화 단선

### ‘불화이야기’展 7일까지 전시

불교미술 본연문도회(회장 이경숙)가 제3회 ‘불화이야기’ 전을 12월 1~7일 서울 인사아트프라자 갤러리에서 연다. 이번 전시에는 기존 작가 및 일반회원 등 23명의 작품이 선보여질 예정이다.

본연문도회는 현재 불교미술 일선문도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전연호씨의 가르침을 받는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대구 불광사에서 불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매주 화요일마다 불화수업을 진행해 왔다. 이번 전시는 불교미술이 일반불자들에게도 관심이 확대됨에 따라 일반인의 참여가 얼마나 증진됐는지 엿볼 수 있는 기회이다. 또, 기존 불화작가들의 훌륭한 기량까지 감상할 수 있는 전시이다. (02)736-6347

### 제6회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

지역 불교미술 발전을 위해 전통건축, 공예, 미술 등 여러 장르의 장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전통문화미술인회는 대구문화예술회관 2층 전시실에서 12월 5일까지 제6회 한국전통문화미술인전을 개최한다.

전통문화미술인회는 영남지방의 전통미술 작가들이 모여 민족전통문화미술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설립된 단체로서, 그간 다수의 무형문화재와 명장이 배출될 만큼 실력 있는 회원들이 활동 중에 있다. 또한 역량 있는 작가 발굴과 단청과 불화의 시연회전, 범종교인들과의 합동전 등 다양한 작품전을 기획해 발표하며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이번 전시에는 25명의 작가들이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예정이다. (053)606-6114



### ‘집’ 통해 삶 말하는 장민숙展

여성 특유의 따뜻하고 온화한 작품성으로 대변되는 장민숙 작가의 여섯 번째 전시가 12월 4일까지 대구 갤러리디엠펀에서 마련됐다. 장민숙 작가는 이미 아트페어와 미술제 등에서 좋은 호평을 받아왔으며, 이번 전시에는 지난 몇 년 간의 작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방향을 설정해 100호 규격 내외의 대작을 선보인다.

작품은 ‘집’을 모티브로 해 집을 통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한다. 집에는 사람이 살지만, 사람만이 사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다. 집은 자신과 타자를 구분 짓기도 하며, 현실로부터 격리시키기도 한다. 작가는 캔버스 안에 집들을 뻗게 그려 그 지마의 사연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네 삶을 표현했다. (053)254-3230



## 윤남진 리뷰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지음 | 사계절

평소 가방을 좀 무겁게, 책을 두 세권 정도 꼭 넣고 다닌다. 빈손으로 다니는 것에 익숙해지면 게을러지거나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이다. 주로 고전이나 사상이 같이 주제나 책 무게가 무거운 것, 경영서나 트렌드분석 혹은 미래예측 같은 실용서, 청소년 권장도서 성격의 가벼운 문고판 수준의 교양서 등 세 종을 섞어 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약속시간까지 기다릴 때, 짬나는 시간의 길이나 해당 장소의 조건에 맞는 책을 선택해 독서를 한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나의 글이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된다는 말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세 갈래 중에서 이번 주는 청소년 교양서 수준에서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책을 소개할까 한다.

〈파브르곤충기〉 〈갈매기의 꿈〉에 이어 세 번째로 〈마당을 나온 암탉〉(이하 〈암탉〉)이라는 동화 이야기다. 이 책의 지은이는 후기에서 “나에게 동화는 삶을 표현하는 한 방식이며, 아이들과 더불어 나 또한 성장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하나의 행위이다”라고 쓰고 있다.

작법에 따르자면 동화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숫자의 플롯, 그중에서도 모험의 플롯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를테면 동화는 ‘어머니의 무릎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어린이들의 두

아서 바람과 햇빛을 힘껏 빨아들이고, 썩어서 거름이 돼 결국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잎사귀’라는 뜻으로 ‘잎싹’이라고 혼자 지어갔다는 대목에서 예고돼 있다. 알만 날아주는 공장을 벗어나 알을 품어 병아리를 낳고 싶다는 ‘잎싹’의 추구는 그에게 굶주림의 결단을 하게하고, 결국 폐계 상태로 버려졌으므로 닭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 야생의 삶은 ‘잎싹’을 돕는 ‘나그네’라는 청둥오리와 이들을 노리는 족제비 사이에서 전개된다. 결국 ‘잎싹’은 우연히 ‘나그네’의 짝이 낳아 놓은 알을 족제비에게 잡아먹힌 ‘나그네’의 짝을 데

어게는 길러야 할 세 마리의 새끼들이 있었으니 ‘잎싹’은 “자, 나를 잡아 먹어라. 그래서 네 아기를 배를 채워라”고 말하며 눈을 감는다. ‘잎싹’은 죽을 이후에야 비로소 자유로이 바람을 가르며 날아오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 ‘갈매기 조난단’은 자유를 향한 여정의 끝에서, 그 자유의 최선이 사랑과 자비임을 말한다. ‘잎싹’은 병아리를 탄생시키고 싶다는 새로운 생명의 추구가 성취되는 그 끝자락에서 근원적 자유를 발견한다. ‘갈매기 조난단’은 그의 날개에 온통 먹고 사는 것에만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잎싹’은 먹고만 사는 것은 무의미하며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추구할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한다.

‘갈매기 조난단’은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친다. ‘잎싹’은 죽음을 통해서 몸이 원했던 자유, 몸으로부터의 자유,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 삶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 의미를 부여받는다. 죽음을 삶 통해 비로소 새로운 여행이 된다. 자유는 새로운 생명을 통해 영속되며, 생명은 자유를 향해 부단히 진화한다. 저는 아이들에게 이것이 바로 내가 생각하는 불교라고 가르치고 싶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연구위원장



## 자유를 향해 나아갈 때 불교다

려움’(브루노 베텔하임)과 그 극복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탉〉은 알만 날아야 하는 공장식 닭장을 벗어나게 된 ‘잎싹’이란 이름의 암탉 모험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알을 품어 병아리를 낳고 싶다는 소망을 이뤄가는 〈오즈의 마법사〉와 같은 종류의 플롯에 가깝다. 주인공의 결단으로 여행은 시작되고, 어떤 목적을 추구해 가는 도중에 여러 장애들이 에피소드처럼 지나가고, 결국 주인공이 추구하는 바를 얻거나 포기하는 결말이 다가오면서 주인공의 변화를 통해 어떤 가치와 지혜 같은 것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 구조 말이다.

이 동화의 결말은 암탉이 자기 이름을 ‘살

신해 품게 된다. 알이 깨어날 무렵, ‘잎싹’과 자신의 새끼를 족제비로부터 안전하게 하고자 ‘나그네’도 족제비의 배를 불리기 위해 잡아먹히게 된다. ‘잎싹’은 결국 자신이 품어 탄생시킨 청둥오리 ‘초록머리’를 족제비로부터 현신적으로 돌보고 청둥오리 무리들과 함께 안전하게 떠나보낸다. ‘초록머리’를 떠나보내며 ‘잎싹’은 알을 품고 병아리의 탄생을 보고자 했던 자신의 소망을 이뤘지만, 또 다른 소망이 ‘초록머리’처럼 훨훨 멀리까지 날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그의 몸이 원했던 소망임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것은 암탉이 이룰 수 없는 소망이다. 결국 ‘잎싹’도 족제비에게 자신의 몸을 내놓게 된다. 지치고 늙은 사냥꾼인 족제비

## 관음태교원 개원 기념 영재태교강의(무료)

### 최초소개! 불교에는 가장 수승한 태교법이 있다

#### 영재들의 민족 유대인의 비밀은 태교

세계인구 0.3%, 노벨상 수상 30% 대한민국 어머니 못지 않은 유대의 극성 어머니들은 과학적 태아 교육과 영아 유아기의 토라와 탈무드 교육을 이어왔고 이것이 노벨상의 산실, 지금의 유대인들을 있게 한 이유였습니다.

#### 그러나 관음태교는 세상 모든 태교법 중에서도 으뜸

유대 태교가 지금의 유대 민족을 있게 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유대태교를 능가하는 ‘관음태교’와 함께 합니다. 건강함과 뛰어난 외모, 총명함과 훌륭한 성품을 지닌 아이 ‘관음태교’는 우리의 아이들이 세계를 이끌게 할 자랑입니다.

#### 세상 모든 태교법 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오랜 전통의 태교

법화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법 태교법이며 삼매 속 관세음보살님께서 직접 부촉하신 희유한 타력 태교로 세상 그 어떤 태교도 관음태교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일요일 3시간의 강의만으로 아이의 운명과 한 가정의 미래가 바뀝니다.

법회안내 - 음력 10월 23일 (양력 11월 28일) BBS 방송녹화



##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일요일 3시간으로 아이의 운명이 바뀝니다

1. 모집인원 : 00명
2. 수강자격 : 관음태교를 배우고 싶은 모든 남녀(특히 미혼·기혼의 젊은 여성 및 신혼부부)
3. 교육시간 : 일요일 3시간 강의 (2010년 12월 5일 ~ 2011년 1월 9일)
4. 교육장소 : 현지사 대전분원 내 영산불교대학(2층)
5. 강의 주제 및 강사 :

- ◆ 관세음보살 보문품 공부, 및 관음태교 실습 (관음태교법 교재 제공)
- ◆ 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윤윤수 (의학박사)
- ◆ 생물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김병기 (부산 동의대학교 생물학과교수)
- ◆ 한의학적 측면에서 본 관음태교 - 원종식 (대구 도솔천한의원 원장)
- ◆ 산모건강체조 - 이영미 (창원병원 재활치료 팀장)
- ◆ 신불교 사상 (관세음보살님의 실존하심과 위대성) - 일도스님 (영산불교대학 교학처장)
- ◆ 관음태교 이론 (불교학과 태교과학의 조화) - 혜은법사 (영산불교대학 교수, 관음태교 저자)
- ◆ 관음태교사례 (관음태교로 아기를 낳은 어머니들의 체험담)
- ◆ 덕산스님 특강 (영산불교대학 학장, 전직 외교관, 영국 엘리자베스여왕으로부터 MBE훈장 받음)

문의: 현지사 대전분원 ☎ 042) 522-5325 팩스 042) 522-5326

영산불교 현지사 영산불교대학 부설 관음태교원

